

“문화재 환수, 정부차원 법 제도화 필요”

부석사불상봉안위, 11월 19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2013년 2월 법원의 부석사 불상 일반 반환 금지 처분 조치 이후 그 기간이 1년 여 남은 가운데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이 모여 환수방안을 논의해 눈길을 끈다.

11월 19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 좌상제자리불안위원회(위원장 주경)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악탈문화재 환수와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가능성’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재 환수 방안이 대두됐다.

의 경우는 1906년 국가유물의 해외반출을 금지하는 ‘유물관리법’을 제정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소장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집트와 그리스의 경우에도 밀반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진행했다.

박 전 부지사는 이어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특히 백제권 역사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한 충남도 내의 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박정현 부지사



김경임 교수



진성영 박사

강력한 법제도, 위원회 구성 등 필요

박정현 전 충남도 부지사는 먼저 문화재 환수의 국제활동을 예로 들며 부석사 불상을 비롯한 국내 문화재 환수활동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박 전 부지사는 “우리와 같이 문화재 수탈이 많은 중국의 경우 정부에서 ‘중국문화정보자문센터’를 설치해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중국해외문화유산전문기금’을 설립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2014년 문화재반환국제전문가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악탈당한 문화재를 적극 찾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부지사는 이어 이집트와 그리스의 경우를 들며 국내에서의 밀반출을 막는 강력한 법제도도 신설돼야 함을 주장했다. 박 전 부지사가 근거로 든 사례에 따르면 터키

중국·이집트·그리스 사례 공개

일본 학계 주장 반박 근거 제시

소유권 주체 부석사로 확정 촉구

주경 스님 “서명운동 할 터”

부석사 불상, 일본 왜구 악탈 확실해

이에 앞서 김경임 중원대 석좌교수는 “현재 일본 측이 주장하는 조선 초 승유역 불에 의해 유출된 가능성, 교역에 의한 취득 가능성 등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1375부터 6년간 4차례 이상 서산지역에 침략한 왜구에 의해 악탈당해 왜구의 주장인 고고사 세운 관음사로 옮겨져 1951년 관음사 주지 안도 료순에 의해 부석사 불상임이 밝혀지고 그 후 1973년 문화재로 지

정됐다. 왜구의 침략과 관음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도 “대마도에 있는 그 어느 곳보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재가 많다”며 “이 중 상당수는 화상(火傷)을 입은 것으로 주로 왜구에 의한 ‘일방적 침구’로 이는 악탈로 보는 것이 일본 역사학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사료(史料)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한 청구 주체 등 세심한 법률 검토

진성영 법학박사는 ‘악탈 문화재 반환청구에 관한 법적 논의’를 주제발표를 통해 단순히 ‘악탈문화재 반환’이 아니라 왜구 악탈과 절도법의 범죄 사이에서 반환청구 주체는 누구이며 그 시효는 언제까지 인가 등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박사는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에서는 일관되게 원소유국을 제외한 어떤 누구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현재 일본 관음사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서명회와 법률 자문을 거쳐 보면 장소 변경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불안위원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와 활동은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아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한다”며 “국제적 규범과 원칙에 따라 미래 자라린 부석사에 봉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구 파계사 원통전’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대구 파계사 원통전(大邱 把溪寺 圓通殿)’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오른쪽 사진>



파계사는 창건에 관한 기록이 확실치 않으나, 신라 애장왕 5년(804) 심지왕사(心地 王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파계사는 팔공산 자락에 원통전과 진동루가 남북축을 이루면서 좌우에 건물이 위치한 전형적인 산지 가람 배치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대구 파계사 원통전’은 근래 발견된 원통전 상량문 묵서(墨書)에 의해 1606년에 중창(重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통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대표식 맞배지붕 건물로, 정면과 측면의 주간(柱間,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은 모두 정간(正間, 정면의 가운데 넓은 칸)을 퇴칸(退間, 평면상 건물 중심부를 둘러싼 둘레 부분)보다 크게 잡아 중앙부의 위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단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지형에 따라, 정면에는 높은 가구식 기단을 쌓고, 좌·우측면과 배면은 외벌대로 구성했다. 가구식 기단과 ‘ㄱ’ 자형 귀틀석의 모습과 기법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유사한 것으로, 건물의 창건 당시인 신라 시기가

지 올려 볼 수 있는 고식으로 보인다.

불단은 상, 중, 하로 구분되며, 그 위에는 보각(寶鑿)을 설치하였는데 조각 수법이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상이 모셔진 수미단에는 수미산을 상징하는 각종 문양이 뿔새김(뿔각)되어 있는데, 이들 중 봉황과 학은 국가의 안녕과 왕손들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새긴 것이다. 이와 건립관음보살좌상(보물 제992호)의 내부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영조 대왕 도포 등은 파계사가 왕실의 원당임을 알게 한다.

파계사 원통전은 고식의 기단을 비롯한 17~18세기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대표식 맞배지붕 건물의 전형적인 특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

노덕현 기자

울진 불영사 ‘역사와 문화’ 학술대회

천축산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울진 불영사(주지 일운)는 11월 8일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울진엑스포공원 회의실에서 ‘울진 천축산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개회식 및 각 분야별 주제발표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 주지 일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불영사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문화적 역량을 상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의 여서 스님은 불영사의 역사와 성보에

대해 고찰했다. 오세덕 동국대 경주박물관 학예사가 불영사의 건축을 주제로 창건기에서 현재까지 지역의 변화를 발표했다. 또한 정명희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사는 “우 학문화재단 소장 감로도가 불영사에서 제작됐다”는 사실을 처음 소개했다.

송은석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극락전 삼세불이 조선후기 활약한 조각승 상륜의 작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우현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1670년 제작된 불연이 현존하는 불연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는 귀중한 작례로 볼 줄급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사천왕사, 신라 성전사원의 핵심사찰”

윤선태 교수, 한국고대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윤선태 동국대 교수는 11월 15일 한국고대학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사천왕사를 비롯한 경주의 사방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성전사원들은 왕경과 지방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지방인이 왕경을 들어오는 입구, 즉 신라 국토 전체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곳이었다”며 “성전사원에 기초한 신라의 독자적인 국가의례는 신라를 전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신본왕 때 세워진 사찰들은 밀교요소를 반영해 국가차원에서 조직화돼 건립됐다.

윤 교수는 “특히 사천왕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제2기 성전사원체제는 오방신과 사천왕으로 수호되는 신라 불국토 상징을 더욱 시각적으로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정석 수원대 교수는 이런 부분이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사천왕사지에는 일반적인 기암배치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유구가

발견되는데 이는 금당의 좌우로 조형된 방형 건축물로 탑의 기반석”이라며 “이러한 쌍탑 가람 배치구조는 일본 분야사사를 비롯해 일본사찰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는 신라인들이 추구한 불국토 등 중심사상이 일본에도 전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주경미 부산대 외래교수는 신라 사리장엄구에 삼국유민들의 화평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에 따르면 2000년 발굴된 감은사지 동탑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중대 신라사리장엄구에는 정교한 청동 주조기법이 사용되는데 이는 7세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 활용된 방법이다.

주 교수는 “사리장엄구들은 신라가 동시대 백제문화와 당나라문화, 신불교사상을 받아들이며 변화를 추구한 점을 나타낸다. 사리장엄구를 삼국의 유민들이 조화로운 화평의 과정을 보여주는 문화적 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남북 분단, 동아시아 화합의 화엄학적 접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11월 29일 추계학술대회

화엄사상의 입장에서 남북통일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사상적 근거를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이진오·조수동)는 11월 29일 오전 10시 양산 통도사에서 ‘화엄 사상과 통합의 시대’를 주제로 2014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통도사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는 윤사 혜남 스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중·일 화엄학자들이 나서 현대의 화엄사상 적용에 대해 논한다. 통도사는 신라시대부터 화엄경을 설한 법회인 화엄산림의 전통이 내려오는 곳으로 근현대 들어 1971년 극락암 경봉 스님의 아난법석을 시작으로 43년째 화엄산림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화엄산림법회는 연인원 20만명 이상이 동참하는 한국 최대 대중법회로도 유명하다.

혜남 스님은 기조발제에서 자장 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한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 온 화엄법회의 역사와 통도사 화엄사상의 배경을 소개한다.

대회에서는 △위도유(魏道儒) 박사(중국사학과학원)의 ‘화엄학의 태형성대적기상’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분단시대의 극복을 위한 화엄학적 조망’ △이시이 코세이 이고마자와대 교수의 ‘인간중심주의 근거로서 화엄경’ △이찬훈 인제대 교수의 ‘세계화와 화엄사상’ △신규택 연세대 교수의 ‘다양한 철학사상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화엄교학 정립’이 발표된다.

논평자로선 각각 김진무 박사, 윤종갑 동아대 교수, 이태승 위덕대 교수, 김영필 대구교대 교수와 임상의 동국대 교수가 나서며 하며 발표 후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이진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학회장은 “21세기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과 산업화로 어느때보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인간성 상실과 소외현상, 민족·세대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살림과 화합의 상징인 화엄학을 통해 통합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 불교학과, 한국,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자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범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제철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끼여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명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신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총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어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학교 수료
- (사)한국산업가운솔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명)